



스타 포커스 입양·암 극복 호주 펜싱선수 감동

암 투병 딛고 광주U대회에 출전한 입양아 펜싱 선수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생후 6개월에 한국서 호주로 입양된 펜싱 호주 국가대표 사이먼 앤드류(22)다. 9살 때 오른쪽 팔 안쪽에 림프암이 발병하는 불행과 마주한 사이먼은 세 차례에 걸친 암 수술 이후 한쪽 팔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끝에 펜싱에 입문했다. 다른 선수들보다 몇 배 많은 맘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 광주U대회 호주 대표로 뽑혀 9일 경기를 앞둔 그는 "펜싱은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말말말 전혁진 "이용대 선배 인기 부러워요"

전혁진(20·동의대)은 최강 멤버로 꾸려진 베드민턴 대표팀 막내다. 독일과의 8강전 남자 단식에서 2-0의 승리를 거뒀지만 긴장했던 첫 경기. 전혁진은 "아시안게임에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더 좋은 경기를 하고 싶다. 처음이라 긴장을 했는데 형들처럼 잘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이용대 선배님은 어딜 가든 인기 스타다. 그런 것도 부럽다"고 말했다. 막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슈퍼스타' 이용대의 반응은 "몰라서 그래요. 나름 힘들어요"였다.

양궁 컴파운드 金4 명중...김종호 첫 3관왕

유도 금메달 3개 추가 총 8개
태권도 품새 남녀 개인전 우승
축구 연습행진, 배구는 8강 실패



7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U대회 양궁 컴파운드 남자 단체 결승에서 한국의 금메달이 확정되자 김종호·김태운이 환호하고 있다. 김종호는 개인·혼성전도 금메달을 따 3관왕을 차지했다

한국은 7일 양궁 컴파운드에서 '금빛 과녁' 5개 중 4개를 명중시켰다. 김종호는 남자 단체·혼성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석권하면서 태극전사 첫 3관왕에 올랐다. 유도는 이날 금메달 3개를 추가해 나흘간 8개의 '금빛 메치기'를 선보였다.

김종호(중원대)는 이날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U대회 양궁 컴파운드 개인전에서 팀동료 김태운(현대제철)을 147-145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종호는 앞서 열린 단체전에서 김태운(현대제철)·양영호(중원대)와 함께 멕시코를 상대로 230-229로 신승을 거뒀다. 송운수(현대모비스)와 팀을 이뤘던 혼성전에서는 인도를 157-150으로 제압했다.

여자 대표팀 송운수는 혼성전에 이어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 2관왕에 올랐다. 송운수는 여자 개인 결승전에서 슬로베니아의 토야 체르네를 맞아 143-143으로 동점을 이룬 후 샷오프 접전 끝에 승리했다.

이날 경기를 시작한 국기 태권도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배종범(조선대)과 양한솔(한국체대)은 품새 남녀 개인전에서 각각 우승했다.

연일 메달을 수확하는 한국 유도도 대회 나흘째 김원진(양주시청)과 김지윤(양주시청), 정보경(안산시청)이 나란히 금메달을 합쳤다.

다이빙에서는 김진용(강원도청)-김영남(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남자 싱크로나이즈드 10m 플랫폼에서 402.96점을 기록, 은메달을 수확했다. 사격의 김미소(서산시청)는 여자 50m 소총복사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땀다. '월드 클래스' 정현(상지대)은 테니스 남자단식 3회전에서 핀란드의 해리 헬리오바라에게 2-1(5-7, 6-1, 6-2) 역전승을 거뒀다.

구기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다. 축구는 남녀 모두 연습 행진을 이어가며 8강에 진출, 금메달 획득의 꿈을 부풀리고 있다. 무안 출신의 김은아·주희가 이끄는 여자핸드볼은 우크라이나, 세르비아를 격파한 뒤 9일 몬테네그로와 예선 3차전을 벌인다.

반면 배구는 남녀 모두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여자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중국, 칠레, 콜롬비아에, 남자는 대만, 아르헨티나, 체코에 차례로 패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U대회

- ▲양궁=리커브 남녀 개인·단체·혼성(기보배·최미선) 결승(10시, 광주국제양궁장)
- ▲육상=남자 100m(김국영)·해머던지기(박영식)(9시), 여자 멀리뛰기(배찬미)(9시30분, 광주유니버시아드경기장)
- ▲베드민턴=남녀 단체전 준결승 및 결승(9시, 화순화남문화스포츠센터)
- ▲펜싱=플뢰레 여자 단체전 결승(17시), 에페 남자 단체전 예선 및 결승(18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축구=여자 준준결승 한국-프랑스(16시30분·호남대체육관)
- ▲골프=남녀(이정은·김아인) 개인 및 단체전 1라운드(8시30분·나주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 ▲유도=단체전(9시·염주빛고을체육관)
- ▲사격=남자 50m소총복사·25m속사권총, 여자 10m공기권총·스키트 결선(11시, 나주전남종합사격장)
- ▲탁구=남녀단체전 준준결승(17시30분, 장성홍길동체육관)

U대회와 함께 즐겨요

- ▲광주 피크닉 뮤직페스티벌 '슈퍼스타 K 콘서트' 8일 오후 8시 삼무시민공원
- ▲청년남장페스티벌 '숨은 보석을 찾아라' 8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광장
- ▲광주국제현대미술제 오는 15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 ▲'헬로우 아트' 8월1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스코어보드

	미국	남자농구	106 : 41		칠레
	한국	남자축구	3 : 1		캐나다
	한국	남자탁구	3 : 0		레바논
	한국	여자핸드볼	30 : 25		세르비아

광주U대회 메달 순위 (7월 19시 30분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대한민국	19	11	10
2	일본	12	11	15
3	중국	11	7	6
4	미국	10	6	8
5	러시아	8	15	12
6	프랑스	7	3	3
7	이탈리아	5	5	8
8	우크라이나	4	9	4
9	리투아니아	4	1	2
10	영국	2	3	2

조선대 배종범 모교서 금메달 '기쁨 2배'

태권도 품새 압도적 기량으로 1위



태권도

그는 결승전에 오른 8명의 선수 중 7번째로 경기를 나서 실수 없이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 7.93

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은메달은 7.64점을 탄 이란의 자마리 파시 마흐디, 동메달은 인도네시아의 하이디르 마우라나(7.59점)와 중국의 우황(7.58점)이 차지했다.

배종범은 "그동안 훈련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부모님과 교수님들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금메달을 따게 됐다"며 "부모님과 교수님들께 금메달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선대에 재학 중인 그는 "꼭 집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편했다"며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운동해서 2년 뒤 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밝혔다. 양한솔(21·한국체대)은 품새 여자 개인 결승전에서 7.67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8명의 선수 중 마지막으로 경기를 치른 양한솔은 차분하게 절도있는 동작을 펼쳤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인시력 교정술 시행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사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